

연천은 왜 아직도 가난한가?

단상



김정겸
경민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장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결국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는 플라톤의 말은 오늘날 연천군의 현실 앞에서도 섬뜩할 만큼 정확하게 되살아난다.

연천군은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수도권 같지 않은 도시다. 서울과 불과 한 시간 남짓 거리이지만, 경제적 체감 거리는 마치 수십만 떨어진 변방처럼 느껴진다.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상권은 무너지고, 지역은 늙어갔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쇠퇴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재난이 아니라 점이다. 그것은 수십년 동안 반복되어 온 정치적 무능의 누적된 결과이다.

연천군의 면적은 약 676km²로 서울보다 넓지만, 인구는 4만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92% 이상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 자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규제를 극복하고 성장한 지역도 많다. 진짜 문제는 규제를 물결 삼아 아무런 미래 전략도 만들지 못한 정치의 빈곤이다.

정치는 본래 미래를 설계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연천의 정치는 오랫동안 미래를 설계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의 언어만 반복했고, 군수는 임기내 보여주는 사업에 몰두했으며, 군의원들은 지역 비전보다 생존형 정치에 익숙해졌다.

그 결과 연천은 '발전하지 못한 도시'를 넘어 '발전이 지연된 것에 익숙해진 도시'가 되어버렸다.

더 부정하게 말하면, 연천은 지난 수십년 동안 정치적 상상력이 실종된 지역이었다. 도시는 철학 없이 성장하지 않는다. 산업 전략 없는 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연천의 정치권은 오랫동안 무엇을 했는가. 기업을 유치할 장기 전략은 있었는가. 청년 인구를 발판으로 교육 혁신은 있었는가. 수도권 북부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국제적 비전은 있었는가. DMZ와 생태 자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키울 계획은 있었는가.

안타깝게도 연천 정치의 대부분은 '관리'에는 익숙했지만 '창조'에는 서툴렀다. 그래서 연천은 늘 잠재력만 이야기하는 도시가 되었다. 잠재력은 풍부하지만 현실은 가난하다. 관광을 말하면 시골 체험형 산업은 약하고, 영화를 말하면 국제도시라는 되지 못했으며, 농업을 말하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결국 연천은 '가능성의 도시'라는 말 속에서 수십년을 정체해 온 셈이다.

경제는 절대로 저질로 살아가지 않는다. 경제는 정치의 결과물이다. "어떤 기업도 들어오지는 않는데 도로가 연결되는가. 어떤 교육기관이 생기는가. 어떤 인재가 머무르는가." 그 모든 것은 결국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다. 그래서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순간, 경제 역시 무너지기 시작한다.

연천의 가장 큰 비극은 가난 자체가 아니다. 더 큰 비극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이 '미래 연천은 안 되는 곳'이라는 패배주의에 길들여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도시의 운명은 지도보다 지도자가 결정한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비전이다.

지금 연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인물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고이다. 행정형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를 이해하는 전략가,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지도자이다. 특히 앞으로의 지방선거는 단순히 공수 뽑는 선거가 아니다. 그것은 연천이 앞으로의 관성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 북부의 새로운 경제·교육·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이다.

정치는 결국 시민 수준의 거울이다. 침묵하는 시민 아래에서는 결코 위대한 정치가 탄생하지 않는다. 연천은 더 이상 '침묵지역'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을 시간이 없다. 이제는 패배주의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의 정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10년도 지난 50년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도시는 늙어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다. 비전을 잃을 때 쇠퇴한다. 그리고 그 비전을 선택하는 마지막 힘은 결국 시민에게 있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는 누구?



아침햇살
고하승 주필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국무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이뤄지는 회동 성격이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사임 가능성이 제기된 김 총리 주재 '고별 만찬'일 수도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에 정당대회를 개최한다. 그런 만큼 '월 시임설'이 나오는 김 총리가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김 총리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이달 중에 사의를 표명하고, 다음 달까지는 후임 총리 인선을 마쳐야 한다. 김 총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 정당대회는 책임당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김민석 총리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예초 예상대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확실히 15대 1로 압승하면 정청래 대표가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할 수 있겠는 것이다. 이번 연임에 성공하면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차기 유력한 집권당 대선주자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비명횡사', '침청왕제' 공천으로 당을 장악하고 피고인 신분임에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정청래 대표 역시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관세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대우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은 물론 '지방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과 민주당 인방적인 전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했다. 이들 지역에선 여야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안팎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문제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곳은 전북이다.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자신이 당선된다면 오는 9월 당에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월 정당대

회 때 민주당 지도부를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며 강력한 '정청래 지도부 교체'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나서 복당을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관영 후보는 당 지도부가 자신의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즉각 재판을 받던 '친청계' 이명박 민주당 후보의 '식사비 대담 의혹'은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행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의 연임 기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적정도로 부당한 서울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정 원오 후보가 패하면 자신을 '월북'으로 하는 선대위를 구성하고 지방선거를 이끈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제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러면 연임을 꿈꾸던 정 대표의

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주요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배하면 정청래 대표에 힘이 잃으면서 자연스럽게 '김민석 대안론'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송영길 전 대표 역시 8월 정당대회 출마를 꿈꾸고 있는 점이 작막 변수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차기 당 대표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송영길 전 대표 역시 고려의 대상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3명이 모두 정당대회에 나설 경우 정 대표가 어부지리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친명계는 김민석과 송영길에게 후보 단일화를 압박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간섭적인 메시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의중은 아무래도 자신과 행보를 함께하는 김민석 총리에게 실려 있을 것이다.

결국, 민주당 차기 당 대표는 정청래와 김민석 맞대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누가 당선되든 그들의 꿈이 당 대표가 아니라 대선에 있는 만큼 '공수 취소'에 열을 올리는 이재명과 차별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고, 이 대통령의 라이벌은 불가피하다. 그게 정치이고 권력의 무상함이다.

한순간 방심이 큰 사고로

기고



유현승
전남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

업 중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촌 도로는 가로등과 조명이 부족한 구간이 많아 야간 시간대 저속 운행 중인 농기계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돌사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작업 전 정비 점검 미흡, 안전수칙 소홀, 장시간 작업에 따른 피로 누적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다. 농기계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농기계, 중장비 사용 전 브레이크, 등화장치, 타이어 상태 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작업 중에는 주변 환경을 수시로 확인, 무리한 작업과 과속 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야간 운행시에는 반사판과 야광 표시 장치를 부착해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대 넘어 화합의 숲으로

기고



장석한
서울시선민원공보계장

료를 겨누기도 하고 서로의 담배막은 높아 견줄 수 없는 강이 흐를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한다. 등 돌린 이웃과 같은 버스를 타야 하고 저녁 노을 아래 각자의 삶을 견뎌야 한다. 선거가 남긴 상처를 이처럼 서로에게 깊은 흉터로 남는다면 그러한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되묻고 싶다.

자비한것은 지극히 구체적인 우리 삶의 터전을 이루는 일이다. 우리 아기가 마시는 물과 내기 같은 보도복룩에는 정과 색갈이 없다. 그저 맑아야 하고 깨끗하면 그 뿐이다. 주민이 행하는 투표행위는 상대에 대한 증오보다 공동체의 내일을 향한 약속이자 우리 마을의 미래이야 한다. 승자는 패자의 상실을 넘어선다고 패자는 승자의 책무를 엄중히 지켜보는 것 그러한 마구막 속에 오는 6월3일 지방선거가 되기를 어느 때보다 소망한다.

시민일보 siminilbo 지방자치를 이끄는 시민의 힘

독자전화 0213676-2114 구독신청 0212926-0217
 편집국 대표 0213676-2114 FAX 021762-8223
 정치·행정부 021765-8115 경제·문화부 0212926-0392
 사회·수도권부 0212926-0314 편집부 0212926-0242
 총무국 0212926-0217 영업국 0212926-0164 FAX 021762-8223
 광고문의 0212926-0164 유통부 032675-7956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사표지시서 신문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
 1994년 9월 26일 창간 · 2012년 6월 1일 제292호
 2001년 10월 9일 등록번호 서울, 710028호 (제1호)

www.siminilbo.co.kr 서울특별시 서빙포동 국회대로 70길 15-109(도당동, 국동VIP빌딩 6층) 구독료: 연간 180,000원 / 월정 15,000원 / 1부 800원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광진구의회

듣는 의회 · 동행 의회 · 실천 의회

구민의 생각대로 광진의 미래를 만드는 신뢰받는 의회

광진구의회